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오동환	토론일	2022/05/27
도서명	모래 사나이	저자	E.T.A 호프만
별점	4/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현대적인 음산한 분위기와 주인공이 발산하는 광기, 모래 사나이 실존의 모호함이 만족스러웠으나, 결말의 빠른 전개가 아쉬웠다.		
한줄평	모래 사나이가 입장하고, 조명은 퇴장하네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이 생명 없는 저주받은 자동인형아!”
로타르가 “망상에 잡힌 미친놈”이라고 말하자, 나타니엘은 “비참하고 비열한 속물”이라고 받아쳤다.

이 끔찍한 유령은 단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코폴라는 매우 정직한 행상이자 안경 제조업자일 뿐 결코 코펠리우스의 저주받은 분신이나 그 유령일 리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나운 비명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가운데 기골이 장대 변호사 코펠리우스의 모습이 불쑥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에 시내로 들어온 그는 곧장 시장을 향해 걸어왔던 것이다. 사람들이 미치광이를 붙잡아 진정시키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코펠리우스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냥 기다려요. 저 녀석은 곧 스스로 내려올 거요.”

감상

작품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와 냉소, 인물 간의 몰이해가 가장 인상 깊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타니엘의 (그의 서술이 사실이건 아니건) 정신 분열을 이해해줬더라면 나타니엘 자신은 물론이고 클라라와 로타르는 피해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소통 단절과 망상에서 나오는 광기는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연상한다.

연금술과 같은 신비함, 끔찍한 설화 모티프나 사람처럼 움직이는 목각인형의 등장을 조화롭게 버무렸으며, 괴기한 묘사 또한 자극적이며 지금 읽어도 섬뜩할 정도로 재미있고 세련됐다. 아버지의 죽음이나 그 정체가 모호한 코펠리우스의 간헐적인 등장과 퇴장 장면을 보아 영화로 제작되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올림피아의 연기도 기대된다.

결말 부분에서 특별한 자극 없이 나타니엘이 광기를 모두 드러내 보인 점은 아쉽다. 차라리 클라라와의 다시 시작된 말다툼으로 나타니엘이 망상과 광기를 드러내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한 클라라가 다른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다는 점은 냉소적이며 그 또한 좋지만, 그 또한 평생 나타니엘의 잔재에 고통받았더라면 싶은 대안이 생각나기도 했다.